

U대회 선수촌 건립 컨소시엄 구성과 향후 일정

분양가 낮춰 업체들 참여 끌어내

11개업체 3~5곳씩 컨소시엄 구성

내달까지 업체 선정 내년초에 착공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 사업에 참여 의지를 보였던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이 철수하면서 난항이 예상됐던 선수촌 건립이 예상 밖의 ‘주민 양보’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8곳이 입찰서 및 이행각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3곳은 마감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며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로 업체들의 참여 열기는 뜨거웠다. 며칠 사이 분위기를 반전시킨 가장 큰 원인은 재건축조합 측이 분양가를 대폭 낮추며 재건축으로 인해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부분을 포기한 것이었다.

◇분양가 낮추자 업체 너도나도 참여=건설업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분양이다. 특히 일반적인 아파트 건립보다 초기 비용이 더 투입되는 재건축의 경우 미분양이 발생하면 업체의 부채비율은 급상승하고, 자금 회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영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가 가장 민감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분양에 성공한 아파트들이 1000만원까지 치솟았던 평당 분양가를 500만원대 후반까지 낮춰 미분양 물량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2015년 광주U대회 이후 분양될 선수촌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는 650만원 선이었다.

다만 분양가를 낮출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도시공사나 광주시는 분양가를 72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두고 일부 미분양을 감수,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분양이 우려되는 구조를 감수하고 참여할 건설업체는 없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최근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의 호반아파트의 경우 평당 58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을 제시해 분양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 결론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추면 그만큼 주민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반면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부담은 높아지게

돼, 주민들의 재입주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개 업체가 분양가와 시공단가 등을 기준으로 3~5개씩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할 경우 일반분양가와 주민분양가의 차이가 최종 컨소시엄 선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향후 일정 일시천리로 추진될 듯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애초에 시공사 선정 1차 9월30일, 본계약 12월30일, 착공 2012년 1월, 완공 2014년 말을 일정으로 정했다. 시공사 1차 선정 기한이 40여일 늦춰졌으나 2015년 7월 초에 광주U대회가 개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소화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당 시공단가나 분양가의 적정 가격은 각각 350만원과 650만원 선으로, 이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한 컨소시엄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 선수촌 아파트가 고급아파트를 지향한

다는 점에서 마감 자체 등도 종합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재건축조합은 다음주 내 컨소시엄 구성, 다음 달까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내년 초 착공 등 일정 아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미 주민들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업체에서 최대한 공사기한을 단축, 성공적인 선수촌 아파트 건립에 매진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6일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해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건립하는 사업에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 11곳이 참여의사를 밝혀 국내 최초의 ‘재건축 선수촌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화정주공아파트단지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강기정 의원 사무국장 긴급체포 청목회 후원금 수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지역구 회계관리 책임자를 긴급체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6일 광주시 북구 두암동 강 의원의 사무실 사무국장인 김모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청목회의 후원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입금된 경위와 법 개정 과정에서 대가류 등을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분석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계부터 김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이날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에도 강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금 입·출금 내용과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예산확보 올해가 마지막 전남도 개최 의지 있나”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예산 지원 촉구…지원법 개정안 2건 상정

국회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조 의원)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엑스포 준비 상황과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열린 회의에서 국고예산 지원 부족으로 각종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SOC)이 행사 시작 전까지 갖춰질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특위 위원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또 전남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날 특위는 또 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두건을 상정했다. 두 개정안은 민간투자자의 숙박시설 투자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 중 일부를 박람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C 완공 행사 전 가능한가=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고급 숙박시설 부족을 템플스테이·기숙사 등을 총망라하며 대책으로 세웠는데 아이디어는 좋지만 대규모 숙박시설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다른 SOC 예산에 비해서 박람회 SOC 예산은 2012년 기한이 있어 중요하다”며 “그런데 여수에 와서 행사장까지 가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아직도 5000억원이 부족해 2012년에 완공될지 의문이다.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대전엑스포 때도 정부는 지방보조금으로 1700억원이 나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갑원 의원은 “전주·광양 고속도로에 432억원, 목포·광양 고속도로에 1600억원, 여수 국가산단진입도로에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집권당이 생색내는 것 적절치 않다”며 “또 대통령이 얼마나 관심 갖느냐가 중요한데 이명

박 대통령께서 여수엑스포 성공을 강조하는 언급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역시 같은 당의 김성곤 의원은 “여수박람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급선이 사실상 마지막이다”며 “여수산단진입도로 중요한데 현재 공정률이 49%밖에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동석 여수엑스포조

역이 4억여원이나 된다”며 “예산 책정 해놓고 안 쓰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행사 시점이 다가올수록 전남도의 엑스포 홍보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또 전남도는 도 차원의 엑스포 회의조차 개최한 적 없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전남도가 엑스포 개최의지 있는 것이냐. 무슨 명분으로 국고지원을 부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전남도는 상해 박람회 참관단을 42회 1000여명을 보냈는데 예산을 썼는데 보고서는 편린일률적으로 차이가 전혀 없었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SOC 추진현황 (단위: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km)	공정(%)	사업비	'09년까지	'10년	'11년 요구	'11년 반영		
총계				98,061	57,952	16,076	15,039	12,307		
고속도로	전주~광양	'03-'11	11.12	118.0	87	22,465	16,052	3,786	2,627	2,195
도로	목포~광양	'02-'12	12.4	101.1	74	21,321	12,781	3,450	3,905	2,305
국도	여수~순천	1.2	'05-'12	12.3	15.1	72	2,708	1,635	500	467
	우두~덕양	'99-'12	12.3	17.7	73	6,348	4,328	810	703	890
발전	전~중(순천시국대도)	'00-'14	14	14.5	52	3,812	1,659	340	357	370
연남~적금	물산~화태	'04-'13	13.6	7.0	43	3,750	1,277	400	500	400
화양~소라	'08-'12	12.12	21.8	5	1,779	43	166	200	314	
산단	여수산단	'05-'12	12.4	9.6	49	10,501	3,137	2,000	3,000	2,000
도로	여수산단	'10-'12	12.4	4.0	설계중	265	-	12	169	150
철도	전라선	'02-'11	11.4	154.2	79	5,026	3,689	437	900	900
복선전철화	순천~여수	'01-'11	11.4	40.0	90	7,448	5,972	1,000	408	476
동순천~광양	'01-'11	11.3	10.9	88	3,725	2,791	518	416	416	
전라선 BTL(민자사업)	'06-'11	11.4	34.4	59	5,654	2,139	2,244	1,271	1,271	
형만	여수항 정비	'07-'12	12.2	78	1,558	748	413	116	116	146

자료 : 국토해양부 11월 현재

직위원장도 “도로와 철도가 행사 전까지 완공 가능한가”라고 묻는 질의에 대해 “여수 인근까지 접근하는 문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로 하고 있어 큰 걱정이 없지만 순천·동광양 등에서 여수까지 들어오는 부분은 지방에서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 취약으로 어려운 실정이다”고 답했다.

◇“전남도 의지도 부족”=미래희망연대의 김정 의원은 “전남도가 엑스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되물고싶다”고 말문을 연 뒤 “여수엑스포 관련 전남도 예산이 36억3400만원이었는데 미집행 잔

다”며 “참관을 발미로 여행 다녀온 거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이런 날 도지사가 와서 위원들과 약속도 하고 직접 부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은 “특위가 열리면 전남도지사과 여수시장이 와야한다. 그것이 특위위원회에 대한 예의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김성곤 의원은 “전남도가 F1 때문에 그랬는지 박람회 주관 광역단체로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각각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기공사 시공에 대한 안내

전기공사, 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규정에 의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위험한 전기재해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게 전기공사를 맡기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를 맡기실 때에는 전기공사업 등록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무등록·무자격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기시면 불량자재 사용, 부실시공 등으로 피해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유·무 확인은 전남도청 환경산업과 ☎061-286-5081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062-364-02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발주자를 위한 안내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 제11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다른 일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동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를 시공한 자
- 전기공사업 등록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자
-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준 자 또는 빌려서 사용한 자
- 100만원의 과태료 :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회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남도회 윤리위원장 김려욱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사 송삼홍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 주정환
한국전기신문사 이사 임영춘
전기공사공제조합 장학회 이사 양시훈

윤리위원

양승만 대성전기(주) 백학성(주)광전력임매남가람전기 최진기(주)효성전기
김재평 대양전기(주) 염규일 광신킨트(주) 김규중 동아전기산업(주) 오인규(주)웅익전력
임형석 부일산업(주) 함중순(주)창신전기 조동신(주)협진전기 정재성(주)미금전력공사
신창수(주)신창전설 안민오 지산전력(주) 김동주 동도전력(주) 김효식(주)국제전기
이종근(주)운경건설 장동우(주)영일파워텍 탁경민(주)강남엔지니어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12 ☎ 062-364-0220/2 FAX 062-364-0223